특별진단 2022년 제주 재도약 (5) 미완의 제주4·3

단순한 과거 사건 아닌 현재진행형 '아픔'

70년 동안 배·보상금 지원 등 위로에 주력
미군정 책임 규명 등 후속작업 주력 전환

올해는 제주 4·3사건이 발생한지 74주년이 되는 해이다.

4·3사건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도민들에게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끝나지 않은 아픔이다.

A(76)씨는 4·3사건 발생 당시 제주시 용강동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었다. 1948년 11월 군·경 합동 초토화작전으로 마을이 불에 타고, 주민들은 학살을 당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한라산 중산간 지대로 피신해 숨어서 지내고 있었다.

1949년 2월 군·경이 주민들이 숨은 장소를 찾아내어 일부는 현장에서 사살하고, 일부는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A씨의 부친도 압송돼 형식적인 조사를 거쳐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육지부로 옮겨져서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후퇴하던 군·경은 후방지역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수형자들을 총살했다. A씨의 부친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전쟁이 끝났음에도 A씨는 부친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A씨는 시간이 흘러서야 군·경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제주 4·3사건 관련 수형자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제주4·3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A씨의 부친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도민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우리 옆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무하고 해원하기 위해 해마다 희생자가 발생한 여러 곳에서 해원상생굿을 열고 있다.

또 제주지역 조작간첩 피해자를 초청해 4·3 유족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입구쪽에 설치된 9연대장 박진경 대령 추모비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지난해말 출간한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4·3사건을 배경으로 했고, 4·3사건 관련 군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동수행단 출범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제주4·3평화상 수상자인 댄 스미스(Dan Smith)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은 제주 4·3사건과 같은 일을 막으려면 미국의 책임 인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4·3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배·보상금 지원 등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뤘다. 올해부터는 4·3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4·3발발 및 피해 발생 과정에서의 미국의 책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이제 새로운 대장정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끝>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변화 맞춰 제주교육 새롭게 바뀌어야"

김광수, 13일 도민카페서 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13일 제주도교육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김광수 전 교육의원. 연합뉴스

김광수 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오는 6월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교육의원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고 힘찬 제주의 미래를 열어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엄중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자리에 섰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교육의원은 지난 2018년 선거에 출마해 현 이석문 교육감과 접전 끝에 석패한 바 있다.

김 전 교육의원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도 기존의 교육방식을 답습하는 답답함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대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과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제주교육도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한다. 그 중심에 저 김광수가 서겠다"고 피력했다. 오은지기자

민주당 제주선대위 인재 2명 추가 영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제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인 '제라진 제주선대위'는 13일 김영익(52) 전 (주)제주넷 대표와 현경준(26)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영입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전 대표는 4차산업 전문가로 제주한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맡아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현 전 총학생회장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제주 ICT산업의 세계화를 통한 지식산업의 활성화로 미래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현 전 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지방분권 강화와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목표에 깊이 공감하며 청년이 지방에서 자신의 꿈과 뜻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환경질환 예방·관리센터 제주 의과대에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위탁 운영기관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2017년 7월 개관해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환자와 가족을 상대로 치료 상담을 하고 있다.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앞으로 3년간 환경성 질환 예방 홍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

허문정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 출범 역사적"

문대통령, 13일 청와대서 첫 회의 주재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국민의힘 제주선대위 고문단·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제주지역 선거대위원회인 '제주를 살리는' 선대위는 13일 제주도당 당사에서 고문단과 선대위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선대위 고문단으로 양우철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순택 전 세종의원 원장, 김용하 전 도의회 의장, 한철용 전 육군소장, 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등이 위촉됐다. 또 강연호, 김황국, 강충룡, 이경용, 오영희 도의원을 포함한 28명이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도민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향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합류하며 제주를 살리는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제주 경제의 회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다가오는 20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정방폭포 부근 소남머리에 정방4·3희생자 위령비 건립

정방4·3희생자 유족님들의 연락처를 찾고 있습니다.

제주 4·3사건 당시 정방폭포 부근에서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하여 위령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방4·3희생자 유족님들의 연락처를 알지못하여 제막식 및 위령제의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유족님들께서는 꼭 연락을 취하여 억울하게 돌아간 영령들에 대한 후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합시다.

아 래

■ **희생한 년도 :** 1948. 11 ~ 1949. 2(4개월간)
■ **희생한 장소 :** 정방폭포, 소남머리, 무죽시(정방폭포 상단), 메릿내, 자구리해안 거문여, 소정방, 정방폭포 인근 논밭 및 소나무숲 등
■ **희생자 인원 :** 서귀면 116명, 남원면 32명, 중문면 42명, 안덕면 56명, 대정면 11명 **계 257명**
■ **기 타 :** 희생자 257명 중 90명은 연락이 되고, 167명 연락처 모름

■ **연 락 처**
- 사무처장 **고 동 욱** ☎ 010-9839-6995
- 추진위원장 **오 순 명** ☎ 010-3697-0196

제주정방4·3희생자유족회 회장 **오 순 명**